

제12절 하원리(下院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國家指定) 명승지 6호와 울진군립공원인 불영계곡(佛影溪谷) 구역 내에 자리 잡은 마을로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면소재지(面所在地)에서 동쪽으로 3km 거리에 있으며, 동쪽은 울진읍 대흥리, 남쪽은 천축산(天竺山)과 불영사(佛影寺)가 1km 거리에 있고 비교적 평탄하며 아담한 마을이다. 불영사계곡 개발 전까지는 농업소득(農業所得)밖에 없었으나, 최근 관광지(觀光地) 민박촌(民泊村)으로 지정받아 관광소득(觀光所得)을 올리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7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500년대에 강릉 박씨(江陵朴氏),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개척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확실한 연대와 인명(人名)은 알 수 없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자연부락으로 하원(下院), 중섬(中島), 밭치밭(田雉)이 있다.

1) 밭치밭(田雉)

하원 동쪽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개척 당시에는 논이 없고 밭만 있었다 하여 밭치밭으로 부르다가 한자로 전치(田雉)라 부르게 되었다.

2) 중섬(中島)

불영사계곡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데 불영사계곡천(佛影寺溪谷川)이 이 마을을 감싸며 우회(迂廻)하니 흡사 섬(島)처럼 보인다고 하여 중섬(中島)이라 부른다.

3) 하원(下院)

조선시대에 출장관원(出張官員)이 머무는 숙소인 원(院)이 광천(光川) 하류(下流)에 있었다 하여 하원(下院)이라 불렀다.

3. 가구 분포

총 41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강릉 박씨(江陵朴氏),

청주 사씨(淸州史氏)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불영계곡(佛影溪谷)

명승지 6호와 군립공원(郡立公園)으로 지정되었고, 두 곳의 팔각정(八角亭)과 휴식소가 있다.

2) 성황당(城隍堂)

3개 자연부락마다 나무 성황신(城隍神)을 모시는 성황당(城隍堂)이 있다.

3) 원터(院터)

조선 때 출장관원(官員)이 묵던 원(院)[지금의 여관]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4) 한티재(寒峙嶺)

한티재는 금강송면 하원리에서 근남면 수곡2리를 거쳐 군청 소재지로 내왕(來往)하던 해발 350m 정도의 고갯길이다. 고개 정상(頂上)의 분지(盆地)에는 “찬물내기”라는 곳에 3세대가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지금은 지명(地名)만 남아있다.

한티(寒峙)라는 고개 이름은 찬물(寒水)이 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또 다른 일설(一說)은 격암(格岩) 남사고 선생이 부친의 명당묘지(名堂墓地)를 찾아 마지막 9번째로 이곳에 이장(移葬)하였는데 안개가 걷히고 보니 묘터를 잘못 잡아 한(恨)이 맺힌 곳이라 하여 “한티재”라 불렀다 한다.

이 고개는 36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농수축산물(農水畜產物)과 생필품(生必品)을 운반하는 길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소금, 석유, 담배 등 전매품(專賣品)의 반입로(搬入路) 역할을 하였다.

5. 전설

1) 불영사(佛影寺)

금강송면 하원리 천축산에 65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이다.

651년(진덕여왕 5)에 의상대사가 백암산 아래 단하동(丹霞洞)과 해봉(海峰)에 올라가서 북쪽을 보니 서역의 천축(天竺)과 같은 명산이 바라보여 산마루를 타고 그곳에 당도하니 산

세의 묘함이 인도의 천축산(天竺山)과 비슷하여 산 이름을 천축산이라고 하였다. 전면의 큰 못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있으므로 주문으로 용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절을 지어 구룡사(九龍寺)라 하였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뒤 절의 정서편(正西便) 산에 있는 부처님과 같은 바위의 그림자가 못에 항상 비쳐 절 이름을 다시 불영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그 후 의상대사가 서산으로 가서 영주 부석사(浮石寺)와 봉화 각화사(覺華寺)를 창건하고 15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불영사로 돌아오니 마을의 한 노인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여 백암산 불귀사(佛歸寺)라고도 하였다.

1397년(태조 6)에 화재로 소실되어 소진대사(小震大師)가 중건하였으나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고 1500년(연산군 6) 양성법사(養性法師)가 중건하여 선당(禪堂)으로 하였다. 임진왜란의 병화를 입어 1609년(광해군 1)에 성원법사(性元法師)가 재건하여 영산전(靈山殿)을 짓고 1701년(숙종 27)에 진성법사(眞性法師)가 수선하였다. 1721년(경종 1)에 천옥법사(天玉法師)가 재건하고 1899년(고종 36)에 설운대사(雪耘大師)가 중수하였다.

2) 인현왕후(仁顯王后)와 불은(佛恩)

숙종(肅宗) 22년에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폐비(廢妃), 추방(追放)되어 자진(自盡)하려 하였던 밤, 꿈(夜夢)에 일승(一僧)이 와서 소승(小僧)은 천축산인(天竺山人)이라 하면서 왕후(王后)는 자진(自盡) 마시고 2일만 더 기다리라 하였는데, 과연 2일 후에 환궁(還宮)하시라는 왕명(王命)을 받았다. 왕후(王后)는 그 후에 불은(佛恩)을 사례(謝禮)하기 위하여 부근의 산(山) 10리(里)를 사(賜)하고 축원당(祝願堂)을 다시 축조(築造)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